

내란 여파에 흔들리는 광주·전남 현안

정부 주도 민간·군공항 이전 협의회의 무기한 연기 '상무광천선' 도시철도·국립의대 신설도 '빨간불'

12·3 비상계엄 여파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현안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이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도시'로 낙인찍혀 예산 배정 등에서 홀대 받아온 광주시는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민간·군공항 이전사업과 복합소핑몰 성공의 키를 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건립마저 계엄 여파 등으로 중단될까 걱정하고 있다.

임기 내내 광주 방문을 꺼려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전국 자치단체 중 사실상 마지막 순서로 광주를 찾아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당시 광주시에서 건의한 상무광천선 도시철도와 AI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군 공항 이전 등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후 관련 정부 부처도 상무광천선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루기도 했으나, 이번 계엄 사태 이후 모든 사업이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가장 먼저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정부 주도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협의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일보 12월 11일자 8면>

주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전남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국토교통부, 행안부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를 고려해 내부 논의 끝에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관련 회의는 2021년 5월 제2차 회의 이후 3년여 만에 어떻게 마련될 것으로, 광주시 안팎에선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복합소핑몰 예정지 주변 교통난을 해소할 '상무광천선' 도시철도 건설 역시 빨간불이 들어왔다.

총 사업비 6925억원(국비 60%, 민간 공공기여금 40%)이 투입되는 상무 광천선은 도시철도 1:2 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기아자동차,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더현대 광주 등 개발 대상지인 방직공장터,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7.78km 구간을 운행하며, 특히 복합소핑몰 주변 교통난을 완화할 필수 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광주시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조만간 국토부와 사전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지역 핵심 현안 역시 상당 기간 추진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지면서 약속 받았던 국립 의대 설립 문제의 경우 열악한 지역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에서 '30년 숙원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전남에서는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발언 이후 끊이질 않았던 지역 간 갈등·경쟁 구도와 소모성 논쟁을 마무리짓고 목표대와 순천대가 통합해 합리적인 설립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아쉬워하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일명 한국형 아우토타) 초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의 경우 애초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16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성공개최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 "내수 살리자"

전남도, 23개 사업 1185억 투입...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등

전남도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23개 사업에 1185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75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상품권 발행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자체 예산을 들여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대 10%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 30억원을 투입,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음식점의 경우 월 10만 원씩 3개월 간 전기·가스·수도 등 총 30만원의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떡볶이'와 '뽕겨요' 등 공공·상생배달 앱을 통해 3개월 간 매일 2만명에게 3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 소비 촉진을 돕고 8만 건의 주문 물량에 3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또 전남지역 807개 여행사에 홍보·마케팅비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여수·산단 화확 플랜트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지원 및 전기·가스비용 저감시설 지원비로 1500만원을 투입한다.

여름철 고온 피해 확인이 늦어지면서 재래로 인정받지 못한 배 재배 농가에 13억 5000만원(예비비)을 투입, ha당 10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60마리 이하 한우를 키우는 소규모 사육농가에 2개월 간 17억원(예비비)을 투입해 100만원 한도로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

김 가공업체에 17억원(예비비)을 들여 '1곳당 1000만원 한도로 원물 구매비용 차액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전북 생산자에게도 예비비 1500만원을 투입, 긴급 경영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아울러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7억원(예비비)을 투입해 7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28억원(예비비)을 투입, 1개소당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경로당 사재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정신계승위 공식활동 헌법전문 수록 등 논의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16일 광주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기념법 제정, 제45주년 기념행사, 제15회 세계 인권 도시포럼 등 5·18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5·18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광주시, 5·18 관련 단체, 시민사회 단체, 시의회,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인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위원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목사)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항공권 위조·출장비로 도박 물품 산 시·도의원 권익위, 국의 출장 실태 조사 적발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국의 출장 실태 점검에서 항공권 조작과 예산으로 간식, 사행성 도박 물품 부정 구입 등이 적발됐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주관 국의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여러 유형의 편법 행위가 드러났다.

광주시의회는 항공권 위조 2건으로 316만원 상당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는 예산으로 주류, 컵라면, 믹스커피, 육포 등 76만원 상당의 간식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의회는 출장 예산으로 화투, 포커 트럼프 등 사행성 도박 물품까지 구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의 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뤄진 원인으로, 국의 출장 심사 기구인 공무국의출장심사위원회의 무능력을 꼬집었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심사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의 출장에 대한 다양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243개 지방의회는 915건 출장비로 355억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뽕겨요' 연말 특별할인

광주시는 16일 "송년 특수가 사라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 할인한다"고 밝혔다.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위메프오'와 '뽕겨요'를 통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주말에만 발행하던 2000~3000원 소비 촉

진 할인 쿠폰을 평일까지 확대 발행하고, 특히 24~25일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최대 4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초유의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연말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기업자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